

# 생물학적 DNA보다 소중한 '사회적 가족'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양우석** 감독  
'대가족'

거리는 성탄절의 반짝이는 장식으로 넘쳐나서 계절이 주는 차가움과 연말의 스산함을 화사함으로 덮어주는 듯하다. 이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을 되돌아보게 된다. 이 계절에 생각나는 가족에 넘치는 소설 '작은 아씨들'



양우석 감독 '대가족'.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1968~1869)이 있다. 루이자메이 울컷의 자전적 소설인 이 작품은 영화나 드라마로 여러 차례 소개되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다. 스토리라인은 기억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독자에 따라 기억을 하기도 안 하기도 한다.

예컨대, 남북전쟁에 참전했다 부상당한 아버지 소식을 듣자 부랴부랴 집을 떠나는 어머니에게 조가 불쑥 돈을 내민다. 당시로서는 거금인 25달러.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판 돈이었다. 그날 밤 끼이끼이 우는 조. 아버지는 괜찮으실 거라며 달래던 언니에게 조는 "내 머리..." 하며 흐느낀다. 웃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대목이다. 머리카락에 대한 상처가 필자에게도 있었으니까. 고모, 이모들이 늘 상주하던 집안이라 초등학교 입학한 후에 아침마다 머리를 묶어주던 어른들은 항상 많았다. 그

런데 어느날 시골에서 올라오신 할머니가 머리가 저분하다며 내 의견은 듣지도 않고 동네 이발소에 데려갔다. 이발사는 팔걸이에 판때기를 걸쳐놓아 앉게 한 후 싹둑 이층단발 머리를 만들어놓았다. 그런 후에는 머리를 기를 새가 없었다. 머리 스타일에 대해 자유로워진 건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였다. 이때부터 길기 시작한 머리는 여직껏이다. 어릴 적 트라우마가 컸던 이유라 생각한다.

남자라 해서 다를까. 영화 '대가족'의 스님 역 이승기 역시 마찬가지였으리라 싶다. 배우 이승기 역시 대본으로 볼 때와 삭발 당시의 느낌이 달라 묘하게 요동치더라 했다. 삭발이라는 공통요소가 있어서였는지 영화 '대가족'의 시사회에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함께하는 진풍경이었다 한다.

함무옥(배우 김윤석)은 서민갑부다. SNS 없던 시절부터 줄 서 먹던 노포 만두 맛집 평만옥으로 집안

을 일으키고 외아들 분석(배우 이승기)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들어간 수재다. 세상 부러울 것 없던 무옥은 아내를 여의고 아들 분석이 승려가 되어 출가하자 근심이 깊어간다.

어느 날 분석이 자신의 아빠라며 평만옥을 찾아온 어린 손님들! 이제 대를 이을 수 있다는 기쁨에 젖은 무옥과 달리 분석은 미궁에 빠진다. 우리나라는 건국부터 역사를 이어온 단일민족이어서인지 핏줄이나 대를 잇는 명분에 목숨을 거는 편이다. 그로 인한 갈등요소나 비극은 또 얼마나 많은 스토리를, 허스토리(herstory)를 생산해냈는지 모른다. 우리에게 소설이나 드라마로 드러난 이야기는 방산의 일각일 만큼 거슬러 올라가보면 대단한 가족사를 집집마다 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란 무엇인가. 1957년생을 꼭짓점으로 삼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기

점으로 인구는 점점 줄고 있고, 다문화 가족의 증가율(22.9%)은 일반 가구 증가율(9.5%)보다 2.4배 높다. 인구의 11%(41만 5584명/2023년 기준)를 차지하는 다문화 가족 수를 보면 이제 '단일민족'이라 기보다는 'Asian Bowl'에 더 가깝다. 뿐만 아니다. 1인 가구 수는 점점 늘어서 41.8%(2024년 4월 기준)에 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의 가족 유형은 과거의 대가족으로부터 핵가족, 확대가족, 직계 가족으로 명명되던 것과 성격을 달리하리만큼 다양화를 이루고 있다.

독신가족, 동거가족, 무자녀 가족, 공동체 가족 등과 같은 개인들의 능동적 선택에 따른 유형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중이다. 맞벌이 가족, 주말부부 가족, 기러기 가족이 있는가 하면 한 부모 가족, 조손 가족, 미혼모 가족, 노인 가족, 재혼 가족, 이혼 후 재결합 가족, 입양가족, 국제결혼 가족, 동성애 가족 등으로 유형 또한 점차 다양화되어가는 중이다.

영화 '대(對)가족'은 이런 시대변화 앞에서 가족에 대한 고찰을 해보자는 속 뜻을 품은 영화다. 영화에서처럼 반드시 생물학적으로 DNA를 물려주는 자식(종족보존 및 대를 잇는존재)을 고집해야 하는가? 답은 '아니다'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대에는 다양한 가족 유형이 있고 미래의 유형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가까이에서 상호 간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웃이나 지인, 교우며 회원들이 있다면, 이 또한 소중한 사회적 가족이 아닐 수 없다.

서로 다른 가족 구조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인정하고 존중하는 열린 마인드를 가져봄 직하다.

백제예술대 명예교수



## 탄핵심판 지연 품수 성난 햇불 지핀다



취재수첩

민현기

취재2부 기자  
hyunki.min@jnilbo.com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른바 '품수 전략'으로 탄핵심판 지연 전략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0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23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19일 대통령 관저로 발송송달을 실시했고, 20일 서류가 도달해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확정했다.

형사소송법 65조, 민사소송법 187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 서류 송달을 거부할 경우 등 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송달의 효력은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 이에 현재가 대통령 관저로 보낸 탄핵심판 서류들은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발송송달 조치에 따라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앞서 현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다. 준비회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 요구가 담긴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서와 입증 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를 포함하는 준비명령 등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헌법학자들은 현재의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탄핵심판의 한쪽 당사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조상원 4차장 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 기일이 첫 사례다. 국회 측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아무도 나오지 않은 탓에 해당 준비기일은 3분 만에 끝났고 변론준비 기일이 연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안 가결 1시간

만에 수령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안 가결 다음날 받은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의 수령 거부와 준비기일 불참이 이뤄질 경우 변론준비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의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이 '품수 전략'을 쓰고 있다 보니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 통과됐음에도 시민들은 전국에서 거리로 나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있다. 시간을 끌수록 국민들의 파면 촉구 촛불이 햇불로 변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 북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